# 광주시 재해예방 6개사업 연내 마무리 청신호

### 양촌동·소촌동·박뫼마을 등
### 상습침수·붕괴위험 개선
### 사업비 절반 이상 국비 확보

광주시가 지난해 6개 재해예방사업의 재원 절반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고 3개 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준공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6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 207억원 중 57%에 달하는 11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국비가 모두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3개 사업 역시 가속도가 붙어 연내 마무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6개 사업지구 모두 상습침수, 붕괴우려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재해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주민안전은 물론 상습 침수 등으로 영농피해를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재해예방사업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300ha)과 도심지 주택가 상습침수 지역(5ha) 해소, 급경사지 붕괴위험 사면 정비(3.6㎞) 등 재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마무리된 3개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남구 봉선동 대아APT 옹벽 붕괴로 지정된 봉선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는 국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사면 보호시설, 네일공 설치, 배수로 확보 등 지난해 1월 마무리했다.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상습 침수피해에 시달린 광산구 소촌1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는 국비 41억원 등 총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해 우회 배수로 1389m 추가 설치 등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북구 석저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국비 3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준공했다.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3개 사업 가운데 광주천과 지석천이 인접해 집중 호우시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양촌덕례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국비42억원 등 총사업비 74억원의 확보해 배수펌프장 증설 등을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이다.

황룡강과 영상강이 인접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를 겪었던 광산구 박뫼마을 배수로정비사업, 폭설과 호우 시 급경사로 인해 주민안전을 위협하던 월산 백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도 4억5000만원과 26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

### 폭설로 생긴 '포트홀'
### 광주시 1188곳 정비
### "120으로 신고해주세요"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파손된 도로 등을 정비하는 등 겨울철 도로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1월 초 내린 눈으로 다량 발생한 도로 파손(포트홀) 응급 복구에 나섰다.

시 종합건설본부, 5개 자치구 등 14개반 75명으로 보수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1905포대의 아스콘을 투입, 천변좌하로 등 1188곳을 정비했다.

시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눈과 비의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포트홀이 다량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도로 파손(포트홀)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매일 도로를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보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행 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교와 지하차도 등 22곳의 미끄럼방지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가 보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한 결과, 동구 중앙육교 등 22곳의 미끄럼방지시설이 노후해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자치구의 열악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시 특별교부금 2억4100만원을 지원해 2월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균 도로과장은 "6905개 노선에 1694㎞에 달하는 광주지역 도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전화(120) 또는 SNS(생활불편신고 웹)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겨울 제설작업과 포트홀 정비 등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지오스쿨 9기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질공원해설사, 보조교사 등과 함께 화산폭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무등산서 배우는 재밌는 지질학 '지오스쿨' 인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방학 기간 지역의 지질유산을 통해 지질학을 배우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교육프로그램 지오스쿨(Geo-School)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21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9기와 10기 참가신청이 접수 첫날 오전에 마감됐다. 푸른도시사업소는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소문에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참가를 서두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오스쿨은 1년에 두 차례 방학기간에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어려운 지질학을 무등산과 그 주변 지질유산에서 배우는 지질교육이다. 지구의 탄생부터 지진과 화산 등을 실험을 통해 배우고, 석고 모형으로 조개화석을 만드는 등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실습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부터 19일까지 9기 과정에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10기 과정이 28명씩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교육은 강의와 실험을 통한 내용으로 진행하며 실험을 도와주는 보조교사를 포함, 7명의 지질공원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질학과 관련한 영화를 상영하고 이를 해설해주는 지질교육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지오시네마(Geo-Cinema)도 운영하고 있다.

시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지질공원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질학 전반에 대한 중학교 과정을 심화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국내 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무등산,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워크숍 150명 참가

광주시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통합워크숍에는 전기차 공용 플랫폼 개발 등 17개 기술개발과제의 주관·참여기업과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지역 혁신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동차 중심 융합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30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광주의 자동차산업 밸리를 조성,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쓰리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공용 플랫폼 개발을 포함해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과 전기 개조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부품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지원2-1 주택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고시

광주시는 최근 동구 지원2-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추진중인 지원2-1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을 반영해 건폐율을 기존 17.16%에서 17.79%, 용적률은 227.26%에서 227.79%로 각각 높였다. 최대 층수는 22층으로 변함없다.

지원2-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동구 소태동 530-1번지 일원 3만3445㎡ 면적으로 단독주택, 일반 건축물 등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만3445㎡ 가운데 공동주택용지가 2만9011.8㎡로, 전체의 86.7%에 달하며, 도로와 연결녹지가 각각 2148.7㎡, 2284.5㎡로 6.4%, 6.9%를 차지한다. 사업시행기간은 구역지정(변경)일로부터 6년이다.

변경 서류와 도면은 광주시 건축주택과, 동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해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들도 열람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도산동·양림동 도시재생사업 29~30일 공청회

광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공청회를 오는 29일과 30일 광산구 도산동 주민센터(2층), 남구 양림동 주민센터(2층)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광산구 원도산안길 23 일원 5만4095㎡에 200억원을 투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는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 살고싶은 양림'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남구 양림동 17-5번지 일원 14만8590㎡에 200억원으로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062-613-4781, yty1004@korea.kr), 남구청 도시재생담당관(062-607-3960, carrot15@korea.kr), 광산구청 도시재생과(062- 960-3934, lss5078@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